

점고푸른

춤

곶한마당, 겨울

2003



민주공원 작은방

- 주최 : (사) 민족미학연구소
- 주관 : 민주공원
- 후원 : 부산 민예총
- 문의 : (사) 민족미학연구소 ☎ 051-513-5898,
민주공원 ☎ 051-462-1016

춤꾼에게—겨울에 춤추는 나무처럼

채 희 원 (부산대 교수, 미학,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한여름엔 이웃나무와 함께 팔랑 들어도 수풀이 되고
바람 불면 파도가 되고 그늘 속에 묻혀도 온통 사는데
노래가 되고 춤이 되었다.

이제 한 때 몸을 앞세워 뜨겁게 갈구했던

푸른 이파리며 줄기찬 운송통로며

검붉은 열매들은 떨어 버리고,

태풍처럼 울부짖던 몸짓들과 숨가쁜 하루저녁과

풍만한 스케줄, 화려한 스텝들을 걸어치우고

순전한 알몸뿔아리로 홀로 섰다.

이웃나무들도 더이상 나의 몸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겨울의 나무는 정말치 혼자서 밤을 새운다.

살과 피와 온갖 근육질과 기름진 굳은 약속과

시퍼런 이념들이 스스로 얼어붙었다.

무릎을 꿇고 동면 또는 동안거에 들어갔다.

배태만 남아 찬바람에 흐느낀다.

뱃속까지 시리다. 배마리가 못이겨 춤을 춘다.

십자가 위에서 사를 낚발을 피와 눈물과 딸과

정액을 한 방울 남김 없이 쏟아내린.

살기없는 마지막 부르짖음.

그 타는 목마름이 그 춤이다.

남은 것이 배마리 뿐인 춤이 춤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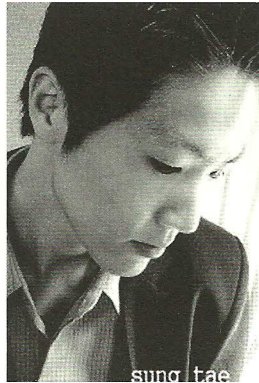
겨울에 추는 배춤이다.



낭만 연탄

안무 : 장 정 호 (동아대 사회체육학과 졸)
출연 : 안 원 영, 남 대 우, 장 정 호

광안리에 있는 연탄집 아들.
장애인 아버지를 대신해 연탄배달 했던,
연탄들과 함께 보낸 사춘기 시절의 이야기.



몰개성시대

안무 : 정 성 태
출연 : 정 성 태, 김 설 진, 이재 영

아이러니한 것들에서 사람들은 개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반복해서 보거나
또는 이해해버리거나하면
식상해버리는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몰개성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가?
하지만 몰개성의 상태에서
또다시 아이러니한 것이나
생각지 못한 개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개성과 몰개성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또 그런 관계들속에서
우리는 어떤시대에서 살고 있는가?!



꽃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무 : 김 미 란
의상 : 안 정 숙
무대 : 백 철 호
출연 : 김 세 진, 이 세 호, 김 미 란

생명... 욕심, 사랑, 절투, 배신, 비밀, 방관... 죽음
작은 욕심 앞에 침묵으로
서서히 무너져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몸부림 없는 아픔이 보였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의 욕심으로 그의 숨통을 죄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한 장의 얇은 수건으로
소중한 사람의 숨통을 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조출연

梨花(이화)

안무 · 출연 : 이 지 연 (육십너무무용단 대표)

흰 빛과 꽃이 가지는 정화의 상징성에 대해,

춤이 갖는 역동성이나 형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움직임
찾으려 했다.